

상교우서는 “교우님들께 올리는 글”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『상재상서(上宰相書, 재상에게 올리는 글)』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.

선교사제 영입 과정에 참여한 임성실 베드로 관련 자료 (3)

- 김기호(김형옥) 회장의 『봉교자술』과 블랑 주교의 서한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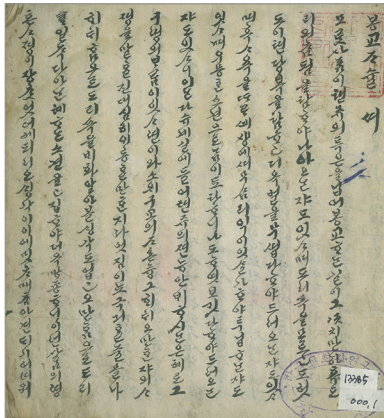
지난 2023년 10월~11월호에 걸쳐 선교사제 영입 과정에 참여했던 임성실 베드로[관찬사료에는 임성룡(林成龍)으로 나옴]에 대한 교회 측 자료 중 신자들의 증언[『기해·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』]을 정리· 소개했습니다. 또한, 11월호에 임성실 베드로의 가계도와 1846년 황해도 여정에 참여한 사람(8명)의 명단도 부록으로 실었습니다.

임성실 베드로(1824~1880)는 김대건 신부가 1845년에 상해로 가서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 신부를 데리고 입국했을 때, 또 1846년 황해도 가서 중국 배와 접촉했을 때 모두 참여했습니다. 1846년 여정 때 김 신부와 함께 붙잡혀 심문을 받았는데 결국 배교하고 유배형[평안도 양덕현(陽德縣)]에 처해졌습니다. 그의 부친 임치백[임균집 요셉 성인은 아들과 연관되어 체포되었는데 김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신앙을 끝까지 지켜 순교했습니다. 임성실은 유배형에서 풀려난 뒤 다시 교회로 돌아와 선교사제 영입에 계속해서 참여했습니다.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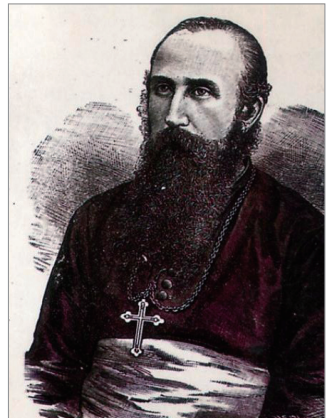
임성실의 출생 연도는 관찬 심문기록[1846년 당시 23세에서 역산한 것이며, 사망 연도는 여동생인 임 안나의 증언[1884년 4월 17일, 67회차 시복재판 - “4년 전에 죽었습니다”]에 근거한 것입니다.



김기호(김형옥) 요한
(『신앙인의 유산 - 4대에 걸친 발
자취』, 1979)



『봉교자술』(한글본, 1901)



블랑(Blanc) 주교
[제7대 조선대목구장]

이번 2024년 5월호에서는 임성실에 대한 교회 측 자료 중 김기호(김형옥) 회장의 자서전인 『봉교자술』과 블랑 주교의 서한 기록을 정리하여 소개하겠습니다. 이 자료들을 통해 1870년대 선교사제의 재입국과 사목활동 과정에서 임성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
1876년 5월, 황해 바다에서 선교사제들을 맞아들이다 [블랑 주교의 서한*]

1866년(병인) 천주교 대박해 이래 10년 만인 1876년 5월,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제들이 만주에서 황해를 거쳐 조선 서울로 입국했습니다. 이때 임성실은 선장으로 배를 끌고 황해 바다로 나가 블랑 신부와 드게트 신부를 맞아들였습니다.

[*전거 : 관독본 - 한국천주교주교회 문화위원회 편찬, 『A-MEP Vol. 580(A) Corée 1875-1886 필사 문서 관독 자료집』, 2011 / 번역본 - 제제구(Jézégou, 崔世敎, 1930~2023) 신부의 수고본[미간행]. 이하 블랑 주교 서한은 동일]

[5월 10일 수요일, 안내인인 김(성흠) 요한이 배에서 내려 서울 시내로 인도해줄 박(순집) 베드로를 찾으러 떠났고] 저희 신부들(블랑과 드게트 신부) 외에 배에 남은 사람들이 4명이었습니다. 이들은 임 베드로(Nim Pierre)와 그의 동생 임씨(son frère Nim), 강 베네딕도, 이 야고보였습니다. 임 베드로는 과거에 [권] 타대오와 함께 중국 배를 타고 와서 [리텔] 주교님께 인사하러 온 일이 있어, 키가 작고 나이가 많은 그 구교우를 잘 아실 것입니다. 그 [임] 베드로는 [1845년에]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함께 배를 타고 조선에서 상해까지 갔다가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 신부를 조선으로 모셔왔습니다. 그는 상해에 다닌 여행 중에 당한 일들과 바다에서 겪은 풍랑을 이야기할 때면 [30년이 지났는데도 공포에 휩싸여] 아직도 몸서리칩니다.

블랑 신부가 1876년 5월 14일 서울 문밖에서 리텔 주교에게 보낸 서한(A-MEP, Vol.580, f.95)

위의 내용을 통해, 임성실이 1876년 5월 당시 동생과 함께 배에 탔으며, 그 이전에 만주 차쿠에 있는 리텔 주교를 만나본 적이 있고, 1845년 상해 여정에도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여동생 임 안나[1836년생의 증언에 의하면, 임성실은 장남이었고 바로 밑에 남동생이, 또 막내 남동생[1846년 당시 2세]이 있었습니다. 1876년 당시 동행했던 동생은 바로 밑의 남동생이거나 막내 남동생이었을 것입니다.

위의 서한 중 5월 15일(월요일)에는, 타고 온 배의 향후 활용 방안과 유지 비용에 대해 임 베드로와 상의했지만,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.(A-MEP, Vol.580, ff.99~100) 이 조선 배는 ‘성 미카엘’(St Michel)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.(블랑 신부가 1876년 5월 19일에 여동생에게 보낸 서한 ; A-MEP, Vol.580, f.108)

1876년 10월, 블랑 신부의 첫 번째 지방 순회사목을 요청하고 준비하다 [블랑 주교의 서한]

블랑 신부가 조선에 입국한 지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황해도 신계 신자들이 임성실을 대표로 삼아 서울로 보내면서 자신들에게 성사를 베풀어주기를 요청했습니다.

[황해도] 신계에서 사는 신자들이 근래에 지난 5월 [입국 때의] 뱃사공(선장)이었던 임성사 베드로(Nim Pierre) syeng-sa-i)를 대표로 보냈습니다. ... 신계 지역에 4,5개의 공소가 있습니다. [신자들의 대표로 온 임 베드로에게] 저는 “별 지장이 없고 [리텔] 주교님이 보내주실 편지들

을 받으면, 음력 10월 초에 [황해도로] 가겠다”고 약속했습니다. … 천주님께서 저의 이 첫 ‘출전’(사목 방문)을 보살피 주시기 바랍니다.

블랑 신부가 1876년 10월 10일 서울 문밖에서 리텔 주교에게 보낸 서한(A-MEP, Vol.580, f.160)

블랑 신부는 임성실의 보고를 통해 황해도 신계 지역의 신자들이 성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, 첫 번째 지방 순회사목 대상지로 신계와 그 주변 지역을 정했습니다. 이로 볼 때 당시 임 베드로가 황해도 신계 지역에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여기서 임 베드로의 이름이 ‘성사’(syeng-sa)로 나오는데, ‘성실’의 음이 잘못 전해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.

1876년 12월~1877년 3월, 블랑 신부의 첫 번째 지방 순회사목을 수행하다 [블랑 주교의 서한, 봉교자술]

황해도 신자 대표인 임성실의 요청에 따라 블랑 신부는 임성실과 김형옥[김기호] 회장에게 성사를 받을 신자들을 준비시키게 하고, 1876년 12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 서로 경계가 맞닿은 경기 북부·황해도·강원도 일대를 방문했습니다. 이것은 1876년 재입국한 선교사제의 첫 번째 지방 사목순회였습니다. 여기서 임 베드로의 이름이 ‘성설’(syeng-sel)로 나오는데, 앞의 ‘성사’와 마찬가지로 ‘성실’의 음이 잘못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.

지난 번에 보내드린 편지[위의 10월 10일자]에서 강원도 신자들이 대표로 보낸 임성설(Nim-syeng-sel)이 저에게 강원도 신자들에게 성사를 주려고 왔으면 좋겠다고 한 것을 [리텔] 주교님께 알려 드렸었습니다. 임 베드로에게 강원도 신자들의 사정과 그 곳으로 가는 길에 대하여 조금 알아본 다음에 저를 안내하러 오면, 다가오는 음력 10월 중순쯤에 그를 따라가겠다고 하였습니다. 그 다음에 과거에 베르뇌 주교님을 따라다니던 김형옥[김기호] 전(前) 회장에게 편지를 보내어 다시 회장으로 임명하고, 강원도에 사목 순회를 할 예정이므로 필요한 사항(만나야 할 사람, 있을 만한 집 등) 알아보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… 회장으로 다시 임명된 [김형옥은] 임 베드로를 데리고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신자들과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된 예비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내라고 충고하였습니다. [양력으로] 12월 초하루 아침에 김형옥 회장과 임 베드로와 삭녕에서 살면서 제가 드리는 미사에 복사할 사람으로 지명된 김여산[김여선]이라는 신자가 차례대로 제가 사는 집에 도착하였습니다. … 12월 4일 새벽에 미사를 드린 다음 상복을 입고 집을 떠났습니다. … 저의 일행이 10명이었는데, 곧 [김형옥] 회장과 [김여선] 저의 복사, 임 베드로, 3명의 가마꾼, 미사 짐꾼과 저의 필수품을 메고 가면서 가마꾼도 되는 사람과 식품들과 돈을 맡은 사람과 저입니다. …

블랑 신부가 1876년 12월 31일 강원 이천 곰의골에서 리텔 주교에게 보낸 서한(A-MEP, Vol.580, ff.194~195)

병자년(1876) 가을에 이전 친히 아는 김 요한 성흠(聖欽)이와 임(林) 베드로 성실(成實)이 두 벗이 찾아와 백(白, 블랑) 신부의 명을 전하여 이르데, “너를 보자신다” 하기로 반잡고 … 두 벗을 따

라 상경하여 [블랑] 신부께 뵈은 즉 분부하시되 “임 베드로와 한가지로 교우 있는 각 지방에 찾아다니며 성사 예비 바빠 시키라” 하시기로 강원도 이천(伊川), 평강(平康), 춘천(春川), 낭천(狼川) 등지와 경기 지평(砥平) 몇 지방에 두루 다니며 권면을 약간하고 그해 10월 19일[양력 12월 4일]에 입경(入京)하여 하루 쉬고, 21일[양력 12월 6일]에 [블랑] 신부를 모시고 전교 길을 떠나니 ... [지방 사목순회를 마치고 1877년] 2월 초9일[양력 3월 23일]에 입경(入京)하여 ...
김기호[김형옥]의 『봉교자술』 한글본 15뒤~16뒤, 한문본 9뒤~10앞

블랑 신부가 임성실, 김형옥 일행과 함께 지방 사목 순회를 한 것은 김형옥[김기호]의 『봉교자술』에서도 확인됩니다. 여기서 임 베드로의 이름은 임성실(林成實)로 나옵니다. 시복재판 증언에서 나오는 ‘임성실’의 한자 이름을 『봉교자술』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조선대목구의 선교자금을 관리하다 [블랑 주교의 서한]

임성실은 선교사제 입국을 위한 배 운영, 사제의 순회사목 수행 외에 선교자금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기도 했습니다.

임 베드로(Nim Pierre)는 [리텔] 주교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금괴와 은괴의 목록을 저에게 가지고 왔는데, [올해] 박해가 닳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오권도 요한의 집 땅바닥에 3명의 증인 목격 하에 묻었습니다. 주교님이나 제가 분명한 명령을 내리지 않고서는 그것이 채굴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.
블랑 신부가 1878년 7월 7일 거창 개화동에서 리텔 주교에게 보낸 서한(A-MEP, Vol.580, f.381)

[리텔] 주교님께서 임 베드로(Nim Pierre)에게 맡기신 금괴와 은괴가 그대로 있는데, [만주 차쿠에 있는] 리샤르(Richard) 신부님께 보내드릴 상세한 보고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. 금괴 2개와 은괴 한 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.
블랑 신부가 1879년 5월 1일 전라도 용담에서 리텔 주교에게 보낸 서한(A-MEP, Vol.580, f.574)

임성실이 1880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작성된 블랑 주교의 서한에는, 그가 리텔 주교[1877년 재입국, 1878년 체포 후 그해 중국으로 추방됨]에게 받은 금괴와 은괴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됩니다.

이석원 프란치스코(연구실장)

소식과 공지

▣ 『교회사학』(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) 24호, 3월 31일 간행

▣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·간행 사업 소개

-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『안성분당 자료집』(전 2책)과 함께 ‘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’ 『모방 신부 서한』과 ‘수원교구 역사총서 - 순교자 증언록 Ⅲ’을 편찬·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·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.